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3호 [루게 제25141호] 주제104(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 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자랑찬 전변의 해, 승리의 해인 2015년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12월 28일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여식에 참석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여식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여식에 앞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불리한 어황 및 일기조건속에서도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사계절 바다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임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이룩하고 당중앙위원회 트락에 틀어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올해 12월에도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 틀어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 회의실의 주인공들이라고 하시면서 동지들이 해마다 이곳에서 한해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과업을 받고있다는것은 물고기잡이전투가 곧 인민군대싸움준비와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문제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만나니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넉넉히 보내주시려고 것처럼 마음쓰시던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경제 부문 일군협의회에서 제시하신 과업들 중의 하나가 고기배를 대대적으로 무어 물고기를 많이 잡을데 대한 문제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보존되어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신 야전렬차의 짐무탁에는 장군님께서 순직하시기 몇시간 전에 평양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해 줄데 대하여 친필로 비준해주시는 문건이 놓여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물고기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생각이

나서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인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 불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온 나라가 축복해주도록 한것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혁명의 한 전선에 뻗치고 서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우에서 순결한 망심을 바쳐온 동지들의 그 마음이 소중하고 또 누구나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당 수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한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올해 수십만이상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이룩하고 동해포구에 《이제어경》을 펼쳐놓을수 있는것은 당정책을 법으로 여기고 당중앙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결사전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동해전역에서 이룩된 놀라운 전과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낸 부모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애국의 열정과 기쁨을 더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이 기세로 나간다면 가까운 앞날에 인민군대의 모든 군부대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짙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황금해의 새 역사를 반드시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 당의 수산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념으로 간직하고 온넛과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 결사관철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우리 당과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지들을 한시바삐 만나 고무해주고 새로 자라난 혁신자들의 손도 잡아보며 가슴에 빈쩍거리는 혼장과 메달들을 달아주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수산전선의 전위대, 선봉대로 내세워 수산부문에서부터 군인생활과 인민생활향상의 돌과기를 열어 나가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창조된 모범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새로운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의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당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명심하고 당중앙이 정해준 침로따라 전속으로 내달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소원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점령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높이 쌓아올린 물고기보물산은 위대한 정신력이 응축된 위훈의 탐이라고 하시면서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인 오늘날 순간의 안일과 헤이, 침체와 담보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서해 전역은 우리 당,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총포성없는 대격전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거세찬 수산열풍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자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게 전인불발의 의지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결사전을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다음해에도 포구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려져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모두 황금해로 전변된 사회주의조국의 바다에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고 모든 초소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짙 차넘치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용감히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조국의 바다우에 황금해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터치는 참가자들의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하여 회의장은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낭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직접 수여하시었다.

열광의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수여

해주신 당 및 국가표창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평범한 어로전사들을 황금해역사의 창조자로 키워주시고 오늘은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참가자들과 함께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해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욱 높이 울림으로써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풍족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의도를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감사문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당이 제시한 물고기 잡이전투목표를 점령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맹렬한 공격전을 벌려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 뜻깊은 주제 104(2015)년 물고기 잡이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전제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혁명적경배를 보낸다.

인민군대에서 겨울철집중어로전투기간 5만여t의 어획고를 기록하고 동해전역에서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신전역 《이제어경》을 창조한것은 수산혁명을 일으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려는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와 현명한 영도라는 결실이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 하면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라도 기어이 물고기산을 쌓아올리고야마는 미더운 총대수산전사들의 총정파 영웅적전신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전과이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수산은 3대축의 하나로 내세우고 인민군대 수산전선에서부터 군인생활, 인민생활향상의 돌기구를 열어나감도 현명하게 영도하고있는 당중앙은 당장전 일흔을 맞이하는 올해에 더 최첨단 물고기대중, 사회주의바다항기로 편전편승을 이룩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밝히 밝혀주었다.

나라의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고 인민군대 수산단위들에서부터 과학화, 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이끌어주며 어로공들의 생활개선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준 당중앙의 비범한 예지와 정책적인 영도가 있어 조국의 동해전역에 몇십년동안 찾아볼수 없었던 호숫한 풍경이 펼쳐지고 지난 시기의 1년도 확고한 단 하루동안에 돌라하는 눈부신 기적도 창조되게 되었다.

매일같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물고기잡이실적자는 당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맹렬한 공격전을 벌려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 뜻깊은 주제 104(2015)년 물고기 잡이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전제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혁명적경배를 보낸다.

벌린 총대수산전사들의 고결한 총정파는 최대로 분출시킨 생광이었다. 올해 도두메기질의 집중어로전투는 예년에 없던 불리한 일기조건으로 하여 매우 긴장한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은 당중앙이 안겨준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20여일간의 하루하루를 영웅적인 투쟁의 분분초초로 이어왔다.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멸사복무의 앞배를 메고 불철주야의 강행군으로 배를 바쳐가는 당중앙에 기쁨을 드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몰아치는 강풍과 파도의 격박을 맞고도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려 기어이 단신기를 휘날렸으며 수산사업수 가족들까지 모두 떨쳐나 초소의 군인들에게 가담을 물고기들이 조급이라도 상할새라 낮과 밤이 따로없이 하륙작업과 가공전투를 벌렸다.

자기들이 잡아내는 한마리 한마리의 물고기에 병사들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사랑이 담겨진다는 숭고한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운 어로공들은 세찬 풍랑속에서도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려 기어이 단신기를 휘날렸으며 수산사업수 가족들까지 모두 떨쳐나 초소의 군인들에게 가담을 물고기들이 조급이라도 상할새라 낮과 밤이 따로없이 하륙작업과 가공전투를 벌렸다.

혁명적투쟁의 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받아안은 무한한 격투와 흥분으로 하여 비상히 양양된 분위기에 진행된 이번 집중어로전투기간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나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단신의 보고는 당중앙위원회, 물고기는 병사들에게!》라는 투쟁구호는 당에 무한히 충직하고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열렬한 사랑을 새겨안은 전제 일군들과 어로공들, 가족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의 발현이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당정책의 요구대로 물고기잡이와 가공에서 과학화,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기적적인 어로실적을 올리고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과 수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현으로 뚜렷이 증명하였다.

황금해역사상조의 앞배에 선 수산사업소들에서는 위성자리에 의거하여 어정관제를 실시함으로써 할수 있는 어로서치위헌체제를 구축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선진적인 어로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항해당, 기망당 어획량을

부쩍 높였으며 지난해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목표를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이번 집중어로전투기간 각종 부대들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어로공들의 심장마디에 당중앙의 높은 의도와 열렬한 병사사랑의 정을 깊이 심어주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였으며 현장을 타고없이 전투지휘를 실행에 맞게 기능적으로 진행하여 동해전역에 새로운 혁신과 로력적위훈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지휘관들과 일군들은 당중앙이 배려해주는 온정이 어로전사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고 가족들의 생활도 따듯이 돌보아주어 모든 전투원들이 수심 일동인 남바다에서 싸우면서도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놀라운 혁신적성과를 거두도록 하였다.

동해의 어로전역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전은 위대한 당의 영도에 붙잡아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과 약동하는 기상으로 찬란한 비배를 앞당겨오는 우리 조국의 국력을 민방에 떨치는 또 하나의 경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온갖 비범한 책동에 매여 달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비수를 박는 패기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정책을 흠잡아대없이 실속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바다에서 우리의 손으로 잡아낸 물고기로 우리 인민군대일군들과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려는 당중앙의 뜻과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정다운 사회주의바다항기로 또다시 실증하였다.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과 현명한 영도는 바다사람의 굳센 신념과 배양,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질과 창조분노에 받들어 선군시대 황금해역사상조의 편전편승을 안아온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중앙결사옹위전의 영용들이고 열렬의 애국투사들이며 이들의 혁혁한 로력적위훈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와 조국형사에 빛나는 한재지를 아로새기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당이 제시한 수산고지점령의 결승선에 자랑스럽게 들어섬으로써 당장전 일흔을 강성병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강사로 성대히 경축한 올해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어 앞으로는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계속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주력으로, 본보기로 하여 황금해역사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성영민을 기어이 풀어드리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제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오시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주제 105(2016)년을 우리 당 수산정책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전철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제일기수,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공들과 일군들은 백두산혁명강군에 붙잡아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과 약동하는 기상으로 찬란한 비배를 앞당겨오는 우리 조국의 국력을 민방에 떨치는 또 하나의 경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온갖 비범한 책동에 매여 달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비수를 박는 패기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제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오시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주제 105(2016)년을 우리 당 수산정책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전철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제일기수,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공들과 일군들은 백두산혁명강군에 붙잡아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과 약동하는 기상으로 찬란한 비배를 앞당겨오는 우리 조국의 국력을 민방에 떨치는 또 하나의 경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온갖 비범한 책동에 매여 달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비수를 박는 패기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공들과 일군들은 백두산혁명강군에 붙잡아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과 약동하는 기상으로 찬란한 비배를 앞당겨오는 우리 조국의 국력을 민방에 떨치는 또 하나의 경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온갖 비범한 책동에 매여 달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비수를 박는 패기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공들과 일군들은 백두산혁명강군에 붙잡아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과 약동하는 기상으로 찬란한 비배를 앞당겨오는 우리 조국의 국력을 민방에 떨치는 또 하나의 경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온갖 비범한 책동에 매여 달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비수를 박는 패기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공들과 일군들은 백두산혁명강군에 붙잡아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과 약동하는 기상으로 찬란한 비배를 앞당겨오는 우리 조국의 국력을 민방에 떨치는 또 하나의 경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온갖 비범한 책동에 매여 달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비수를 박는 패기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제104(2015)년 12월 22일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감사문 전달

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가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를 황금해역로 빛내이는 자는 당의 전투적초소를 받들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풍랑바다를 넘어 남바다에서 힘찬 어로전투를 벌려 올해 물고기잡이과업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 수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스린한 뚜렷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명감을 떨친 이번 회의는 부단적인 애로와 단란을 과감히 뚫고 최첨단 물고기대중을 안아온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배워 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

회의장은 사회주의조국의 바다에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밝게 앞장서서 총지휘가 받들어 수산혁명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을 높여준것이었다.

회의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구호들이 회의장에 나붙어있었다.

황병사 동지, 박영식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모범적인 선장, 어로공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환가》주악으로 회의는 시작되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당이 제시한 물고기 잡이전투목표를 점령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감사문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전달하였다. 인민부령부장인 특근대장 박영식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렬한 애국의 초소와 뜨거운 믿음의 담길 강령적연설을 퍼들은 심장마디에 받아안고 신념의 맹세를 다지며 동서해전역으로 달려가던 때로 부터 1년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난 1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방위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던지 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바쳐가시는가를 눈물겹게 돌아본 나날들이었으며 당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전군의 수산부문이 산악같이 떨쳐나 전례없는 물고기대중을 안아온 애국총정파와 위훈의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뜻깊은 올해 신년사에서 나라의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서서 수산혁명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군인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한평생 불면불휴의 투쟁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도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인민군대 수산사업소들이 절세위인들께서 뿌려놓으신 행복의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감도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셨다.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고기대중을 마련한 오늘의 최첨단 풍경을 보여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는가고 말씀하실 때 우리모두는 굶주리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군대에서 새해벽두부터 물고기잡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리며 어로공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총폭발시켜 모든 수산사업소들이 물고기잡이전투로 들끓게 하시었다.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들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헌만금을 들여 조국의 푸른 바다에 《단풍》호고기배들을 편이여 띄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에도 많은 호고기배들을 보내주시고 현대적인 어로 설비들과 어구들을 갖추도록 해주셨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산사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시었으며 인민군대를 바다양어의 개척자, 선구자로 내세워주시며 전군에 양어혁명의 불길에 새차게 타탄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어로공들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하여 사나운 풍랑을 헤치면서 가감 빛나는 위훈을 세운 혁신자, 투사들이며 이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키기 위한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 하였다고 말하였다.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백운같은 총정과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더 높은 물고기잡이 성과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사상과 의도에 고기배와 어구들을 현대화하며 과학적인 어로전투를 적극 벌려 포구마디에 물고기사태가 펼쳐지게 하여야 하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사나운 풍랑을 파고히 뚫고나가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다음해에 또다시 물고기대중을 안아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이 유용일, 립민학, 박용남, 김명용, 안용선, 리주범, 리용희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먹이시려고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군대 수산부문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호모의 정을 격조 높여 토로하였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보고자는 언제나 우리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을 황금해역사상조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은 끝없는 열정과 위훈이 쌓여온것으로 되었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올해 물고기잡이전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적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전이었으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었으며 원수님의 반공화국고립살해동을 짓부시고 군인생활과 인민생활향상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사회주의수호전, 치밀한 반제국주의투쟁이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신념과

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으며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으며 이것이 잡고 저것도 잡는 방법으로 물고기잡이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감이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정관제기술과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호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항해당, 기망당 어획량을 높이며 1t의 연유로 10t의 물고기를 잡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바다나물양식과 양어를 적극 발전시키고 수산물가공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수산자원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려 당정책을 0.01mm의 편차도 없이 가장 충직하게 받아들여가는 열렬의 전투투사들의 혁명적투쟁과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화선식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수산사업소사이, 수산부담반사이, 《단풍》호물사이, 호고기배들사이의 경쟁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전투원들의 양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키며 사나운 남바다에서 일하는 어로공들에게 식량과 기초식품, 빨강과 로동보모물자들을 지표별로 전진공급하여야 한다.

전국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창조된 당중앙결사옹위전, 군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멸사복무의 본보기를 따라배워 전례없는 물고기대중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총결기, 총동결함으로 사회주의 조선의 포구마디에 로동당시대의 《세어경》을 펼쳐놓아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적투쟁을 남김없이 과시함으로써 황금해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리라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제104(2015)년 12월 22일



【조선중앙통신】

더 많은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이라!

체육인재육성에서 비약을 이룩할 불타는 열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체육대학에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체육발전양성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체육발전교육단위들에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체육부문에서도 새창개타오르고있다. 특히 조선체육대학 입학준비 교원, 연구사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자라가야 할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자각한 조선체육대학의 모든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진군의 발자국을

조 선 체 육 대 학 에서

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학장 신동규총무부 비록한 이 못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고된 투쟁의 열의가 조선체육대학에서는 뜻 깊은 열매를 맺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대학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이 단 한해사이에는 일신된것을 두고 이것을 찾는 사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앞서떨리는 연구자들을 소개하는 속보판, 날로 높아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성적지표판,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대학체육단 선수들이 이룩한 성과를 전하는 체육소개판을 통해서도 온 대학을 들끓이는 비약의 열풍을 뜨겁게 느낄수 있다.

체육과학발전사업, 체육관, 복화실, 기숙사, 식당 등과 종합체육관장들이 완전히 새 모습을 띠고 수습생의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최신로 꾸며졌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풍부한 5대교양자료와 수많은 원리교육강의안, 원경강의안, 전공외국어강의안 등이 새롭게 작성되고 수습생의 교육지원프로그램, 많은 종목의 준비운동에 필요한 물품준비가 연구완료되었다. 또한 수습생의 교과사, 참고서, 전공리론문답집 등이 집필된것을 비롯하여 당창건 70돐이 되는 올해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체육대학이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크다.

대학에서는 이에 토대하여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전례없는

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학과목들의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실기수준을 부단히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과학적태도로 올려세울 일념에 넘친 불같은 사색과 탐구로 날과 날을 이어가고있다.

교원, 연구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훈련장과 경기장들에 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제기하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강রি울아붓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결과 종합선수들의 운동능력을 최대로 높이고 피로회복을 촉진시키는 문제 등과 같은 가치있는 연구과제수행이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대학에서는 새로 내놓은 수습생 종류에 따른 물품준비를 교육실천과 체육단선수들의 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내밀고있다.

온 대학이 이렇게 들끓고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보는 혁신적인 안목으로 대학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비약의 불비람을 세차게 일으키려는 이 못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창조적투쟁은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올것이며 그와 더불어 체육강국건설을 앞장서서 떠밀고나갈 체육인재의 대오는 끊임없이 늘어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 협 힘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 온 나라 체육인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가슴 불태우며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으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시대의 벽한 승전에 발맞추어 우리의 체육인재의 새로운 금메달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된 이후 미더운 체육인들이 세계최고급의 경기무대에서 3중세계선수권보유자, 2중세계선수권보유자 또는 위훈명예로 10대의 녀자체육선수들로 승리의 금메달을 금지높이 안아올리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기전법으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의 창조자가 되자.

조선체육과 의지의 대결인 동시에 기술과 전술의 대결인 체육경기에서 우연이란 있을수 없다. 세계적인 특기기술을 가진 선수들이 조국을 빛내이는 체육신화창조의 선구자로 위훈명예를 수 있다.

체육경기에서의 승리는 체육인들의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준비와 함께 경기전법의 우월성과 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체육선수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높은 목표를 세운대 기초하여 훈련장에서 단련하고 또 훈련하여 명실공히 세계를 딛고 올라설수 있는 우리의 특기기술, 우리 경기전법의 강자로 든든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체육부문에서는 체육과학발전이 결정적인 힘을 넣어 훈련과 경기의 과학화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며 앞선 훈련수단, 우수한 훈련방법, 경기전술, 수법들을 연구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체육선수들의 체질에 맞게 받아들여 국제경기무대에서 조선의 금메달열풍을 더욱 새창개 일으킬수 있는 우리의것을 끊임없이 늘어남이 가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7차 전국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을 받고도 백두의 넘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비약의 총진군을 다그쳐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는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로 조국의 빛나는 기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자.

이 장엄한 현실은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승리적기상을 파시하는 새로운 체육신화를 부르 고있다.

우리 체육인들이 당의 품속에서 다지고다진 재능과 용맹을 총괄발사케 조선의 금메달열풍을 끊임없이 안아올릴 때 당 제7차대회를 향해 북돋아달리는 인민의 정신력은 백배해지고 민족의 슬기와 기상은 더욱 높이 떨치게 되며 체육강국, 강성국가건설승리의 날이 앞당겨진다.

◇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기전법으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의 창조자가 되자.

조선체육과 의지의 대결인 동시에 기술과 전술의 대결인 체육경기에서 우연이란 있을수 없다. 세계적인 특기기술을 가진 선수들이 조국을 빛내이는 체육신화창조의 선구자로 위훈명예를 수 있다.

체육경기에서의 승리는 체육인들의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준비와 함께 경기전법의 우월성과 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체육선수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높은 목표를 세운대 기초하여 훈련장에서 단련하고 또 훈련하여 명실공히 세계를 딛고 올라설수 있는 우리의 특기기술, 우리 경기전법의 강자로 든든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체육부문에서는 체육과학발전이 결정적인 힘을 넣어 훈련과 경기의 과학화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며 앞선 훈련수단, 우수한 훈련방법, 경기전술, 수법들을 연구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체육선수들의 체질에 맞게 받아들여 국제경기무대에서 조선의 금메달열풍을 더욱 새창개 일으킬수 있는 우리의것을 끊임없이 늘어남이 가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7차 전국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을 받고도 백두의 넘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비약의 총진군을 다그쳐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는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로 조국의 빛나는 기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자.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짧은주로속도빙상경기에서

1, 2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기에서는 대성산, 태봉, 평양철도국, 장사진, 장산체육단 등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500m, 1000m, 1500m경기를 비롯한 여러 세부종목경기를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경기에서의 승리는 체육인들의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준비와 함께 경기전법의 우월성과 위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체육승리애단위의 책임부원 홍순진총무가 이야기한바와 같이 경기들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오산체육단 선수들의 드높은 열의가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대성산체육단에서는 선수들 속에서 백두의 훈련열풍을 새창개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특히 전선체육훈련의 비중을 높여 전선 선수들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경기에서 실지 싸 먹을수 있는 기술을 부단히 연마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어 육체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높은 경합들을 쌓은 모든 감독, 선수들은 보다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고 비약하고 또 비약하여 나라의 거울체육종목들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는데 적극 이바지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속속한 과학기술발전이 토대하여 과학화되고있는 현대체육의 발전추세를 놓고볼 때 청소년체육학교들의 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도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자면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리원시청소년체육학교 교장 김효성총무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 특히 당 제7차 대회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과학화

사리원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된 소식에 접한 후 더욱 그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의 과학화는 체육발전의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전례없는 선수후비육성성과로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자! 이 높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리원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중심교리로 틀어쥐었기 바로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였다.

그 실현을 위해 김효성총무는 지도교원들이 이미전부터 이용하고있던 자료들의 내용을 종합별특성에 맞게 보다 과학적으로 서술하고 그에 따른 토대하여 교수훈련지도도 진행해나갔으며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자료집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제7차 대회 연구자료와 육화물만 해도 수십권이 달랐다. 그 과정은 한마디로 우리 지도교원들의 자필항상을 위한 지름길로 되였습니다.》라고 김효성총무는 확신성있게 이야기하였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 가지가 되는 방법들을 새롭게 탐구하여 자료집의 내용을 풍부히 한 하나의 사리를 놓고서 아이들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당 제7차대회를 향해 전진해나가는가를 잘 알수 있다. 특히 주무되는것은 지도교원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동하면서 학생신발을 과학화하기 위한데 큰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제19차 전국체육과학발전대회에 출품되었던 선수가운데 그레코로마네스트라, 이 기제를 리용하여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감각능력을 알아내는데 기초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체육적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있다.

11월부터라도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초, 정구, 풍구, 배스볼 종목 등에 적합한 10여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기초기초교육을 주고있는데 앞날이 무척 촉망된다고 한다.

이렇게 당의 과학중시로선을 보정으로 틀어쥐고 전국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학교의 사업장부가 기대된다.

사리원시청소년체육학교는 지난 기간 국제제초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친 홍순진선수 등을 키워낸 평양체육단의 김준필감독을 비롯한 이 팀있는 체육인들을 적지 않게 배출한 자랑을 가지고있다. 그 자랑을 더욱 빛내어갈 심연에 넘쳐있는 이 못 일꾼들과 지도교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오늘날 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 혁신을 안아오는 열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과학화현안에 있다고.

본사기자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일념안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새창개 일으킨다.

—사립체육단에서—



후진단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새창개 일으켰다. 뿐만아니라 축구, 태권도, 배구, 배드민턴, 격구, 기계체조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에서도 주체조선의 체육정신, 우리 식 경기전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100여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70개의 메달을 뽐내었다. 주체체육과를 비롯한 새로운 경기종목과도 면이 있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을 크게 고무하였다.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체육경기성과로 더욱 빛내이는데는 선수구축적합을 수행한 30명의 선수, 감독들이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 감독, 태권도선수로 선정된 뛰어난 인재를 소개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재들은 선군조선의 혁명적체육인의 열매로서 본분과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올해에 제7차 전국체육대회 열풍을 마려내시고 역사적인 서한도 보내주시였으며 몸소 체육경기도 보아주시고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제일 먼저 마중도 해주시며 우리 체육인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쳐주시였다.

그 믿음과 사랑에 붙들고서 고된 우리 체육인들은 체육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과

체육인재육성에서 비약을 이룩할 불타는 열의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조국과 인민의 값높은 평가, 체육강국건설의 전위투사된 끝없는 금지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 감독, 태권도선수로 선정된 뛰어난 체육인들

후진단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새창개 일으켰다. 뿐만아니라 축구, 태권도, 배구, 배드민턴, 격구, 기계체조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에서도 주체조선의 체육정신, 우리 식 경기전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100여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70개의 메달을 뽐내었다. 주체체육과를 비롯한 새로운 경기종목과도 면이 있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을 크게 고무하였다.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체육경기성과로 더욱 빛내이는데는 선수구축적합을 수행한 30명의 선수, 감독들이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 감독, 태권도선수로 선정된 뛰어난 인재를 소개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재들은 선군조선의 혁명적체육인의 열매로서 본분과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올해에 제7차 전국체육대회 열풍을 마려내시고 역사적인 서한도 보내주시였으며 몸소 체육경기도 보아주시고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제일 먼저 마중도 해주시며 우리 체육인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쳐주시였다.

그 믿음과 사랑에 붙들고서 고된 우리 체육인들은 체육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과

자상도 수여받았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의 두번째 자리에 오른 4, 25세육단 불에 뛰어들이기 선수 김국강.

그는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경기인 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의 불에 뛰어들이기 10m고정관경기에서 단연 우승하여 사람들로부터 높이 이 종목에서 우리 나라의 첫 세계제권자로 자랑될것이다. 나라에서는 어린 나이에 단숨에 세계대회를 뛰어쥐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그에게 인민체육인의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2015년 세계격투기선수권대회 남자 56kg급경기에서 세계 새 기록을 세우고 추격올리기의 총합에서 각각 우승하여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의 영예를 떨친 압록강체육단의 임윤철선수와 2015년 세계격투기선수권대회 여자 48kg급경기 추격올리기에 단연 우승한 평양체육단의 리성금선수 그리고 아시아 및 세계격투기선수권대회들에서 좋은 경기모습을 보여준 조선체육대학체육단의 김명희, 김관하체육단의 리정성, 최희심선수와 같은 여러명의 격투기선수들도

가졌다. (리성금)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잊지 않고 백두의 넘으로 훈련열풍을 새창개 일으켜 태권도모국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전술을 억척같이 다져갔다. (리위성)

체육강국건설의 선구자들의 최우수선수의 위에는 명감독이 있다

어머나당에 기쁨드리고 올해의 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지닌 미더운 주인공들이! 그들의 이름과 함께 자랑스러울 또 다른 이름들이 있다.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감독들로 선정된 김광민, 신정철, 로현철, 조광현, 임상호, 신명수, 최학, 김춘희, 김성환, 김준필총무들.

김광민총무는 선수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면서 부단히 변하는 정황에 맞게 신속정확한 경기지휘로 2015년 동아시아축구대회 여자부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하도록 이끈 책임감독이다.

김준필총무는 선수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면서 부단히 변하는 정황에 맞게 신속정확한 경기지휘로 2015년 동아시아축구대회 여자부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하도록 이끈 책임감독이다.

10대 최우수감독들 중에는 10대의 나이를 김국강선수를 세계제권자로 키운 신정철총무

김명희선수의 감독인 조선체육대학체육단 격투감독 임상호 총무의 진심어린 말이다.

기관체육단 감독 김춘희총무에 대하여 리정철선수는 자기의 기술발전을 위해 마음속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힘겨운 것 같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국가남자축구종합팀 책임감독 김성환총무는 교수훈련지도와 경기지휘에 열정을 바쳐 우리 인민들에게 남자축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최우수감독들중의 한 사람이다.

평양체육단 기계제초감독 김춘필총무가 다지는 보답의 맹세도 뜨겁다.

◇ 당창건 70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를 자랑찬 경기성과로 빛내이고 승리의 대추진군을 향한 총진군에 끝없는 활력을 부어준 미더운 체육인들의 모습에서, 보답의 열망이 차넘치는 그들의 심장의 목소리에서 인민은 그러보고 있다.

위대한 당과 어머니조국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오늘도 영예를 더욱 누리고 또 금지드노는 체육신화창조의 열풍으로 이어가며 체육강국건설의 물파루를 앞장서서 열어나갈 전위투사들의 새 모습!

본사기자 오철룡 강효심

김명희선수의 감독인 조선체육대학체육단 격투감독 임상호 총무의 진심어린 말이다.

기관체육단 감독 김춘희총무에 대하여 리정철선수는 자기의 기술발전을 위해 마음속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힘겨운 것 같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국가남자축구종합팀 책임감독 김성환총무는 교수훈련지도와 경기지휘에 열정을 바쳐 우리 인민들에게 남자축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최우수감독들중의 한 사람이다.

평양체육단 기계제초감독 김춘필총무가 다지는 보답의 맹세도 뜨겁다.

◇ 당창건 70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를 자랑찬 경기성과로 빛내이고 승리의 대추진군을 향한 총진군에 끝없는 활력을 부어준 미더운 체육인들의 모습에서, 보답의 열망이 차넘치는 그들의 심장의 목소리에서 인민은 그러보고 있다.

위대한 당과 어머니조국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오늘도 영예를 더욱 누리고 또 금지드노는 체육신화창조의 열풍으로 이어가며 체육강국건설의 물파루를 앞장서서 열어나갈 전위투사들의 새 모습!

본사기자 오철룡 강효심

